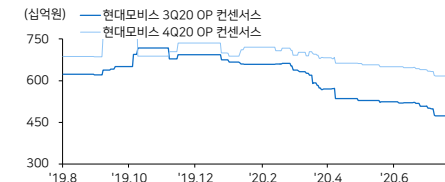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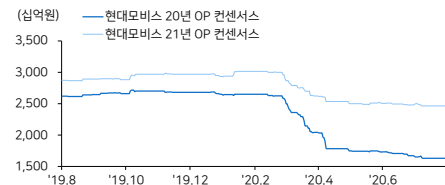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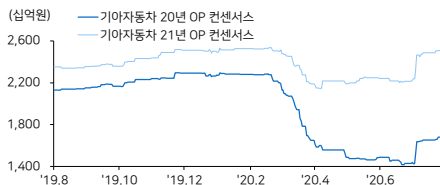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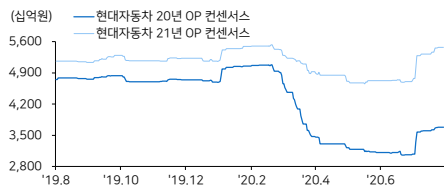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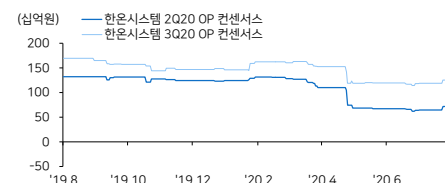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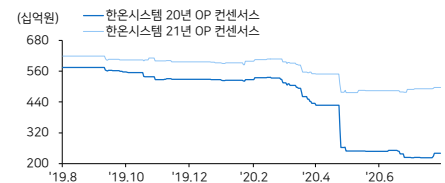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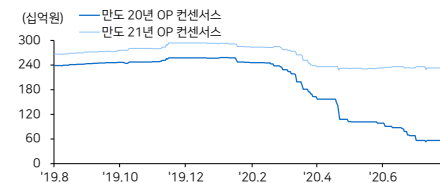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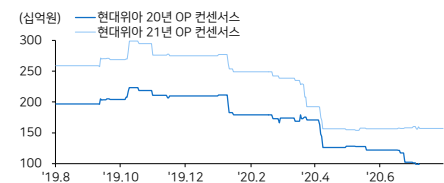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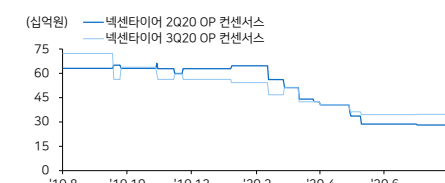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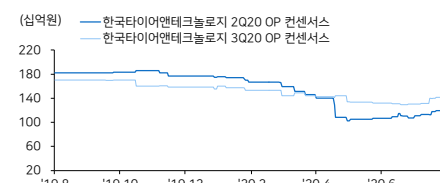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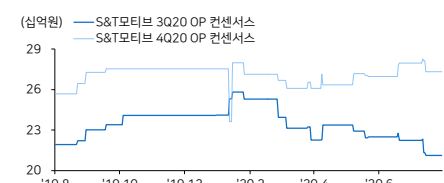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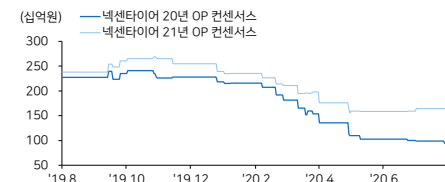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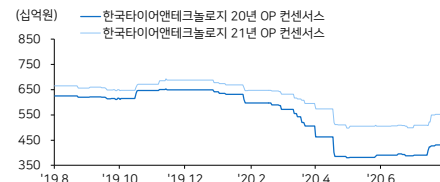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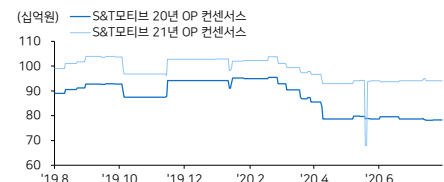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차, 유럽 전기차 판매량 첫 2위·4위 등극 (전자신문)

유럽 BEV 시장에서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가 각각 2위, 4위를 차지. 7월 한 달 판매량이지만 국내 전기차와 유럽 시장에서 올린 역대 최고 성적표. 'C19' 여파로 경쟁 업체들의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수혜를 봄. <https://bit.ly/3fbB9pc>

현대차 디자인 공돌인 새 루한 나온다, 사전계약 신기록 내심 기대 (비즈니스포스트)

아반떼, 쏘렌토, 카니발 등 올해 자동차시장에 나온 신차들이 사전계약에서 잇따라 기록을 다시 쓰고 있음. 현대차의 새 루한도 사전계약에서 흥행몰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 31일 현대차 인팍의 말을 종합하면 9월 새 루한이 시장에 나온.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4001

정외선 중국 전기차 정면승부, 현대차 고급화 길 닦기 먼저 (비즈니스포스트)

정외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5'를 통해 중국 전기차시장에서 정면승부를 준비. 현대차가 신차 출시와 고급화 전략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얼마나 개선하느냐가 아이오닉5 성공의 변수가 될 수 있음.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3998

인도정부, 공용 전기차 발주 프로젝트서 현대차 '코나 EV' 100대 수주 (M오토데일리)

인도 정부가 배기가스 감소 및 연료 수입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산하 정부기관에서 사용할 전기관용차 입찰을 보류. 경기 침체 장기화 및 입찰 모델의 성능 부진으로 코나EV 100대와 넥스 EV 150대를 제외한 나머지 750대의 입찰을 보류. <https://bit.ly/3409J11>

현대차 'IFA' 첫 참가...친환경차 전략 발표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국제가전박람회(IFA)2020에 참가해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전략에 대해 발표. <https://bit.ly/2QHtH90>

현대차 쏘나타·싼타페, 루한, 미국 10대 취향 저격 '최고의 차 선정'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자동차가 미국 10대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 31일 U.S. 뉴스 &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차의 쏘나타와 싼타페, 그리고 루한이 미국 10대들이 뽑은 '최고의 차'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hMnuf>

공돌대는 인도 후시장, 현대차 '포스트 코로나' 준비 (글로벌이코노믹)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때 '전면 섯다운'을 맞았던 인도 시장이 다시 공돌되는 모습. 현대차는 수요 회복세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 중. 차량 판매량은 폐쇄 조치가 끝난 5월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 <https://bit.ly/2Ely575>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 2017년 60만 대, 올해 200만 대 예상 (산업일보)

중국 자동차 산업 트렌드 변화의 중심에는 신에너지차가 있음. 전기차 등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017년 60만 대에서 2018년 105만 대로 크게 늘었다. 중국산업정보에 따르면 올해는 201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 <https://bit.ly/2YRgikd>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